

무의식과 실재 및 환상 간의 묘한 작가 이기봉 개인전 'Where You Stand'

November 19, 2022 | 박효정 기자

Page 1 of 3





[앵커]

안개 낀 듯한 자연을 몽상적으로 담아내는 이기봉 화백이 개인전을 열었습니다.
세계의 질서는 모호함에 있고 이를 표현하는게 작가로서의 오랜 과제였다고 하는데요.
박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.

[기자]

안개가 자욱히 내려 앉은 물가.
습기를 가득 머금은 나무들은 눈으로 보는 실제 풍경만큼 다채로운 감각을 안겨줍니다.
이기봉 화백은 산 중턱의 습한 작업실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으로 20여년간 작업해왔습니다.
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, 얇은 망사를 위에 덧댄 뒤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, 마치 안개 낀 자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
<이기봉 / 화백> "세상은 사실 여러겹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마치 책처럼. 그러나 가장 축소된 형태로서의 두 겹, 그 사이에서 세계를 느낄 수 있는..."
또렷한 형체없이 모호한 풍경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복잡성을 의미합니다.
인간의 세계는 말이나 글로는 완벽하게 풀어내기 어렵고, 모호한 모습에 가깝다는게 화백의 예술관입니다.
<이기봉 / 화백> "모호함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모호함 자체가 세상의 본질이기도 하고. 그것을 상당히 훌륭한 제 작품의 기본 콘텐츠로, 태도로 제작을 해나가고 있죠.
986년 미술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이 화백은 전세계 곳곳에서 전시를 열어 회화와 설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.
40년 가까이 작업한 끝에야 자신을 세울 여유가 생겼다는 이 화백. "사람은 누구나 각자 마음에 예술의 방을 갖고 있다"며 전시를 찾을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.
<이기봉 / 화백> "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거울처럼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, 그 마음을 갖출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"

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